

제 18회 삼중전회 후 중국의 개혁개방

주한중국대사관

경제상무처

왕종용 참사관

1. 새로운 역사의 시점에서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필요성

새로운 역사의 시점에서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필요성

새 국면 새 임무를 맞이하여, 전면적으로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이고 부강한 문명하고 조화를 이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점에서 전면적인 개혁 심화가 필요하다.

새 그라운드 개혁의 큰 방향

외향형 모델의 전환 방향

- 무차별 개방형 경제
- 내수전략 확대
- 경제의 국제화 전략

불균형 전략의 전환 방향

- 공평한 기회, 시장경쟁 촉진으로 성장 견인
- 공평한 결과, 도시-향촌 간, 주민 간의 격차 최소화
-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낮은 원가 우위의 질적 전환 방향

- 자체 브랜드, 직업 능력 교육
- 자주 혁신, 산학연 협력으로 혁신 개발
- 자주 발전, 사회 책임, 녹색 경제사회로의 전환, 사람을 기본으로 한다

전면적 개혁심화의 총 목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개선 및 발전

- 경제체계 개혁 심화:
시장경제

- 정치체계 개혁 심화:
민주정치

- 문화 체계 개혁 심화:
선진문화

- 사회체계 개혁 심화:
화합 사회

- 생태문명 체계 개혁
심화: 생태문명

- 중국 최대 문제는 관리(治理)에 있다, 제도 수입 필요
- 국가관리체계: 생태, 사회, 경제, 행정, 마카오-홍콩, 전 세계
- 국가관리 방식: 독립, 법치, 공정, 투명, 민주, 인권.
- 국가관리능력 현대화
- 제도 규칙 제정, 법치, 규범, 질서 및 책임 명확히
- 민주 제도 개선, 민의 참여, 민주적 정책 결정 및 기초단체 민주자치제도
- 능력 보장 제공, 충분한 인력 자원 물자 지원
- 업적 평가를 합리화하고, 성장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정치적 업적평가를 하는 편향을 시정하고, 자원 소모, 환경파괴, 생태 효익, 생산능력 과잉, 과학 기술혁신, 안전생산, 신규 채무 등 지표의 가중치 확대, 취업, 주민수입, 사회보장, 인민 건강 상황에 대한 중시 확대
- 감독평가 강화

핵심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 해결

-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하여, 각종 시장 주체가 합법적이고 평등하게 리스트 외의 영역 진입 가능
- 시장에서 가격 형성이 가능한 모든 것은,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정부의 부적절한 간섭을 안 한다.
- 도시-농촌 건설용의 부지 시장에서 동일한 권리, 동일한 가격으로 진행, 공익성 용지, 택지 및 농경지 예외
- 공유제 경제 재산권 침범 불가, 비 공유제 경제 재산권도 동일하게 침범 불가
- 투자 메커니즘 개혁 심화, 기업의 투자 주체 지위 확립
- 조건에 부합한 민간 자본이 합법적으로 중소형은행 등 금융기관 설립할 것을 허가한다
- 효율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여 조절 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하여 일련의 심사 모두 취소한다
- 농업 가정 경영, 집채 경영, 협력 경영, 기업 경영 등 공동발전 추진
- 점차적으로 조건에 맞는 농촌 출신 근로자를 도시 인구로 전환한다
- 진(鎭) 및 소도시의 정착 제한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중등 도시의 정착 제한을 순차적 개방하고, 대도시 정착 조건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초대형 도시의 인구 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 도시 진입하여 정착한 농민은 도시주택 및 사회보장체계에 포함 시키며, 농촌에서 기가입한 양로보험 및 의료보험을 도시 사회 보호체계에 포함시킨다

2. 경제 세계화의 새로운 패러 다임 적응

경제 세계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적응

- 우리나라는 여전히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발전 시기에 처해있다
-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 및 금융위기, 화폐 위기
- 경제 세계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적응
- 실물경제와 가상 경제 간의 불균형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정책
-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과 재 균형

높은 수준의 글로벌 자유무역구역 네트워크 형성

첫째, 중국(상해) 자유무역 시범지역을 높은 수준의 FTA 규범 시범지역으로 형성한다

둘째, ECFA/CEPA 업그레이드 버전을 형성한다

셋째, 적극적으로 RCEP를 추진하여, 역외 인프라와 상호 연결

넷째, 높은 수준의 FTA 글로벌 네트워크를 수립하여, 전면적인 남남, 남북 협력 메커니즘 협력 심화

다섯째, 대국과의 FTA 체결 추진, 예) 중미, 중-유럽, 중-러시아, 중-인도, 중-일

- 중국과 체결한 자유무역구역: 아세안, 싱가포르, 파키스탄, 뉴질랜드,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스위스; 대륙과 홍콩-마카오 CEPA, 대륙과 대만 ECFA ; 현재 진행 중: 한국, 페르시아 만, 호주, 중일한, RCEP ; 인도와 RTA 연구, 콜롬비아, 스리랑카와 FTA 공동 연구

- 필립 스티븐: 미국은 2차 전쟁 후, 다자주의에서부터 연맹 국가 간의 특혜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바꾸는 추세. 다자간 무역 협정은 미국의 전략에서 등한시 될 것이다. 미국의 지지가 없는 한, 다자간 질서는 파괴 상황으로 갈 것이고 글로벌화도 파편화될 것이다. 자유 무역 질서의 최대 수익국으로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글로벌화 종결의 패배자가 될 것이다. - 영국 타임지 2013.10.10

3. 세계 경제 새로운 단계 진입

글로벌 재 평형의 새로운 조정단계 진입

- 선진국이 세계경제성장에 많이 기여하는 주체로 선회했고, 신흥경제체는 집단적으로 성장 둔화
- IMF의 2014년 예측에 따르면, 신흥경제체, 2014-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4.6%에서 4.3%로 하향 조정, 2020-2025년 연간 3.2%로 하향 조정, 2014-2019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2.4%, 유로존 1.3%
- 미국 양적완화 단계적 퇴출 개시
 - 단기: 양적완화 및 수출 확대, 양적완화 퇴출은 달러 가치 상승, 수입 증가, 유가 하락을 야기할 것
 - 중기: “재 공업화”, 재 혁신, 재 취업, 2009-2018년, 구조조정 중간 단계 진입
 - 장기: TTP/TTIP/일본 유럽 등 글로벌 경제 물의 비상 경제시국,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조정
- 중국은 새로운 역사의 시점에서 전면적인 개혁 심화 필요
 - 단기: 안정적 성장, 인플레이션 통제, 안정 유지 압력은 점점 커지고, 7%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개혁 심화하는 것이 요구됨.
 - 중기: 과잉 생산능력을 축소시키고, 구조조정, 경제 구조의 업그레이드는 최소 5-8년이 필요한 힘겨운 싸움이 될 것
 - 장기: 체제 개혁, 경제성장 방식 전환, 경제 구조의 전환은 2020년까지 중요 영역과 중요 절차에 결정적 성과를 얻을 것
- 신흥 도시화와 신흥 공업화는 함께 우리나라 현대화의 엔진이 될 것

**4. 전면적인 개혁 개방 심화 결과는
전체 인민이 더 많이 더 공정
하게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

왜 FTZ 인가? (미국 애플 회사 상품 사례)



(1) 발전은 여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다

- 결국 우리가 선택할 것은 성장 속도인가 아니면 품질적 이익인가
 - “취업의 딜레마”
 - “창조의 딜레마”
 - “서비스의 딜레마”
 - “수입(소득)의 딜레마 ”

결국 우리가 선택할 것은 성장 속도인가 아니면 품질적 이익인가 - “취업의 딜레마”

- 2012년 말 전국 취업자 수는 76704만 명이며, 전국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266만 명 늘어났다. 그 해 연말까지 도시 등록 실업률은 4.1%이다. 전국 농민 출신 공장 근로자 인구는 26261만 명, 전 년도 보다 3.9% 증가했다.
- 10.5기간(제10차 5개년 계획) 도시 연평균 신규 취업자 수는 930만 명; 11.5기간(제11차 5개년 계획) 1140만 명이다.
- 예측에 따르면, 신규 일자리 1000만 개를 보장하고, 도시지역 실업률 4% 이내 수준을 유지하려면 중국이 연간 7.2%의 경제 성장률을 지켜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것은 성장 속도인가 아니면 품질적 이익인가 - “창조의 딜레마”

- 2012년 전 사회 연구개발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까지 상승했다, 그중 74% 의 연구 투자는 기업의 투자이다. GDP 성장률이 8%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상황에서, 중국기업은 사상 초유로 연구개발, 혁신, 설계, 창의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설령 이렇다 하더라도, 현재는 오직 14%의 대규모 기업이 R&D 활동을 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것은 성장 속도인가 아니면 품질적 이익인가 – “서비스의 딜레마”

- 과거 10년 동안 GDP 비율 중 상승 폭이 가장 높은 산업은 서비스산업이다. 2012년 제3산업의 비율은 44.6%를 차지했다. 2013년 상반기에 이 수치는 47.8%까지 상승했다. 과거 서비스 산업의 증가치의 비율은 더 늘어나지 않았던 주요 원인은 서비스업 실질 조세부담이 크고, 서비스산업 시장의 진입장벽 높고, 서비스 관리 체제는 시장경제발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있다. 연간 8% 이하의 GDP 성장 속도로는 경제구조 전환 압력은 미소 곡선의 양측이 신장되게 한다. “영개증”(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 등 개혁 대책도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것은 성장 속도인가 아니면 품질적 이익인가 - “수입(소득)의 딜레마”

2000년-2011년

- GDP 연평균 10.7% 증가
- 1인당 GDP 연평균 9.4% 증가
- 도시 주민 실질소득 연평균 8.6%,
- 농촌 주민 실질소득 연평균 7%

(2) 기업 환골탈태 전환 고통 직면

-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과잉생산 현황
- 원가 대폭 상승과 장기간 가격 하락
- 개혁, 개방과 조정의 불안정 리스크 증대
- 개방이 개혁을 촉진시키는 리스크
- 기업이 환골탈태 전환 고통 직면(특히 소기업은 오더, 인재, 기술, 자금, 공평한 기회 등의 결여하는 문제 심각)
- 노동 밀집형 전통산업의 전환 향상 시급
- 자본 밀집형 산업의 전환 시급
- 기술 밀집형 산업의 돌파 시급
- 산업의 신구(新舊) 모델 전환 시기 진입
- 공급구조조정은 공급관리정책의 실행 필요

(3) 내수 확대의 전략적 지지대 역할을 활용

- 소비 패턴의 변화는 공급 전환 기회를 이끌어 낸다
- 분배 재분배 체제 개혁 추진
- 우리나라 도시화 발전추세
- 도시화 발전의 주요 형태는 도시군 이다
- 도시군 발전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환 촉진
- 중국 대외무역전략: 글로벌 생산체계
- 협력을 통한 국제 공급 사슬 효율 증진

중국 대외투자전략: 글로벌 생산체계

- 2000년 “10.5”중 가장 먼저 “走出去 (해외투자)”전략을 제시
- “10.5”, 국외 가공무역과 부족한 자원의 협력 개발 지지
- 2006년 “11.5”조건에 맞는 기업에 대하여 “走出去” 지지한다고 제시
- “11.5”, 원산지 다원화와 국외 인프라 건설 참여 촉진
- 2011년 “12.5” 기획 “走出去” 전략 실시 가속화를 촉구
- “12.5”, 글로벌 영업 네트워크 형성 및 브랜드 창립 독려, 해당 지역의 민생과 사회적 책임(CSR) 중시

국제협력을 함으로써 국제 공급 사슬 효율을 증진 시킨다

- 첫째, 협력을 통해 국제 생산과 무역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외, 생산 공급소비, 산업의 업 스트림, 다운스트림, 내외 무역 상호 연결하여 효율을 증진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상품의 흐름, 물류, 인류, 자금류, 정보류의 막힘없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둘째, 협력을 통해 국제 인프라 공급사슬망의 효율을 증진한다. 신 운송 혁명, 신 통신혁명, 신 에너지 혁명 등 거대한 상업 기회를 잡고, 협력하여 생산국 현지와 제3시장의 종합교통운송 인프라 체계를 수립한다.
- 셋째, 협력을 통해 국제 금융 공급망을 구축한다. 서비스무역 영역의 선행 개방을 포함하며, 무역융자, 인민폐 국제화, 장기융자 수단 의 혁신 개선 등 면에서 새로운 정책을 우선 시행한다.
- 넷째, 국제 공급망관리의 서비스 규범, 기술 표준, 법률 보장 등을 확보하여, 시장 질서, 생태 질서, 사회 질서를 보호 및 유지한다.
- 다섯째, 공동으로 국제시장 개척, 중소기업이 신흥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전략 연맹을 맺고,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